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백운선사 '無一花'

49세 이전의 행적이 없어 고려사의 기술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전북 고부에서 출생한 선사의 법명은 경한(景閑), 법호는 백운(白雲)이다. 충정왕 3년(1351)에 중국 호주 가마산 천호암으로 가서 선종의 거장이신 석옥청공 선사와 지공 선사에게 법을 구하였다. 석옥에게 법을 구한 지 1년만에 깨달음의 큰 전기를 맞이하였다. 선사는 무심무념(無心無念)의 참 뜻을 깊이 인지하였다. "곧 내 마음에 맺혔던 의식은 얼음처럼 풀리고 무심무념의 위엄은 참 뜻을 깊이 밟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스승 석옥은 선사에게 인가를 하였다. 3월에 고려로 귀국하여 성각사에 주석하여 용맹정진하였다. 정진을 하던 계사년(1353) 정월 17일 오시(午時)에 단좌를 하고 입정에 들어 있는데 문득 영가 대사의 증도가(證道歌) 가운데

무심의 거울은 비추어도 항상 허공 이로다.
 골짜기 흐르는 물은 쪽물인 것 같고, 문밖의 청산은 자연 그대로이다. 산색, 물소리에 전체가 드러났으니, 그 속에서 무생(無生: 모든 법의 실상)은 생멸(生滅)이 없는 것의 깨달음을 얻었노라.

선관(禪觀)
 黃面羅漢不良久(황면구담불랑구) 室中維摩亦不默(실중유마역불묵) 恰似吹毛新發刃(恰似吹毛新發刃) 外道天魔處不得(외도천마처불득)

금빛 얼굴의 부처님은 유구한 세월도 없나니, 방장실의 유마힐도 침묵하지 않는다. 선의 본바탕은 세로이 연마한 취도 리면(변개)이 빠른 검과도 같으니,

물속 달빛 허공서도 볼수있으나 무심의 거울은 비추어도 항상 허공

"망상을 버려라 하지도 말고, 진실을 구하려 하지도 말라, 무명(無明)의 실성(實性)이 곧 불성이요 환화(幻化)의 공신(空身)이 곧 법신이다"는 어구에 이르러 그 뜻을 깊이 담연(湛然)하였을 때, 무심이 되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전과 후가 아주 끊어져 조금도 의지 할 곳이 없어 명연(冥然)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선사께서 확인대오 했다.

무일화(無一花)
 一念不生全體現(일념불생전체현) 此體如何得喻齊(차체어하득유제) 透水月華虛可見(투수월화허가견) 無心差象照常空(무심감상조상공) 洞中流水如藍染(동중류수여람염) 門外青山盡不成(문외청산진불성) 山色水聲全體露(산색수성전체로) 箇中誰是悟無生(개중수시우무생)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전체가 나타나니, 이 본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으리요, 물속 달빛은 허공에서도 볼 수 있으나,

외도와 천마(天魔)도 넘보지 못하네. 선사의 깨침은 무념무심(無念無心)의 진종(眞宗)이다. 선관(禪觀)은 무심일도(無心一)로서 이뤄졌으며, 무심무상(無心無上)의 선관(禪觀)이다. 선관의 가르침은 밝은 해도 밤에는 비추지 못하는 것이며 밝은 거울도 뒤에는 비추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진실을 찾기도 못하든 본체는 없는 것이며, 허공을 궁구해도 자취조차 없는 것이다. 선사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무심을 관하였다. 마음에 뜻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의 법이 생기는 것이며, 마음이 멸(滅)하면 여러 가지의 법도 멸하는 것이다. 마음을 끊어서 무심이 되지 않으면 간화선에 있어서 화두도 본래의 뜻보다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을 일으키는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경계만 있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멸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끊으면 경계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무심의 적조(寂照)로서 깨달음의 진종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선사께서는 공민왕 3년(1374)에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하셨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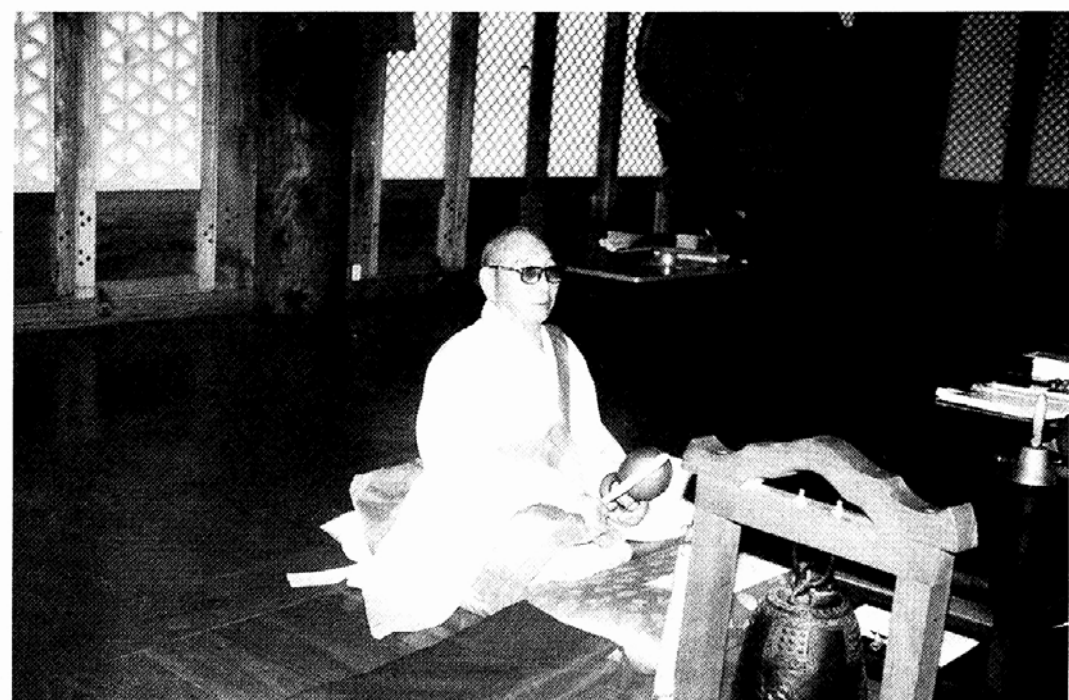
구암스님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성불이란 완벽한 인간되는 것”

일상에서 묻어오는 갑갑함을 다스려 줄 시원한 폭포수 같은 사자후가 아쉽고, 예전의 선지식들이 그러하셨듯 깨우친 스승을 찾아 깨달음을 구하고픈 간절함이 짝은 요즘이다. 이렇다 할 갈등도 없는 일상이건만 속절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장난에 속을 때마다 너의 갑갑한 마음을 내어 놓아라' 하는 일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안의 속진을 훌훌 털어버릴 대안을 찾고 싶어진다.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인 구암 스님을 뵈러 가는 심정이 그러했다. 한번 가 본 적이 있는 기억을 더듬어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관음사를 들어서자 길지 않은 몇 년 사이 전각들의 모습이 크게 변해서 마치 처음 와보는 듯한 생경함이 물려왔다. 그러나 구암 노스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인사 를 여쭙자 "잘 삽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스님의 근황을 너그러히 알아차리게 한다. "집에서는 염불하고 바깥에서는 법문 하는 게 요즘 생활의 전부"라고 덧붙인 스님은 전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국의 테러 대참사사건을 화제로 삼으셨다.



◀외부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내면을 다져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구암 스님.

응징보다 수습에 온 정성

"세상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아도 중요한 일은 놓치지 않고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니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고 보복을 한다. 응징을 한다 떠들썩 하더군요. 사건이 더 위험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적인 인심을 얻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두루 두루 보살피는 덕을 베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심을 잃은 것이나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어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원한을 원함으로써 갚으면 더 큰 원한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응징보다는 수습에 온 정성을 쏟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국력이 세고 약한 것, 국토가 크고 작은 것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일체를 나와 동일시한 부처님의 세계관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나아졌지만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왜정시대라

이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먹는 게 늘 부족해 배를 곯아야 했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행정진을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내면을 다지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구암 스님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점령되어 있던 왜정시대에 출가했다. 스님의 말씀처럼 그 당시 우리 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진리를 구하는 출가사문의 구도정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점령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처음 출가해서는 성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 도가 터진다고 하는데 도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는가 하는 의심이 낫지, 허허허. 지금은 남에게 포교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발전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지."

이어 스님은 "성불이라는 말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가 쉽지 않으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완벽한 인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 마음 비울수록 대상과 일체가 되는 지혜 움춧어나요 ”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 만물여아일체(萬物與我一體) 처만변이여부동(處萬變而如如不動) 운호갑이완안상존(論浩劫而宛然常存)

계승을 옮기고는 다시 자상하게 풀이해 주신다.

"태어나면 죽고, 가을 되면 곧 겨울이 오고 봄 되면 꽃이 피고,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물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한번, 열번, 백번, 천번, 만번을 변화더라도 변하지 않는 곳에 처함이 성불이요, 또 태어나고 죽고 시간적으로 아무리 윤회를 한다고 해도 맴돌지 않는 데 거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나 생사를 초월한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체

적으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갓난 아이였던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시집 장가를 가고 장년이 되어서 모습이 자꾸 늙어서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들리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이처럼 변해가는 세상에 함께 살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찾는 자리이니 그것에 함께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개미가 물그릇 가를 맴돌 듯이 자꾸 윤회하더라도 그것을 좇아 윤회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좋은 법문을 듣고 나면 늘 남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법문의 내용을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법문의 뜻을 감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자리, 윤회하지 않는 그 자리를 체득한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를 향해서 가는 길, 즉 완성된 인간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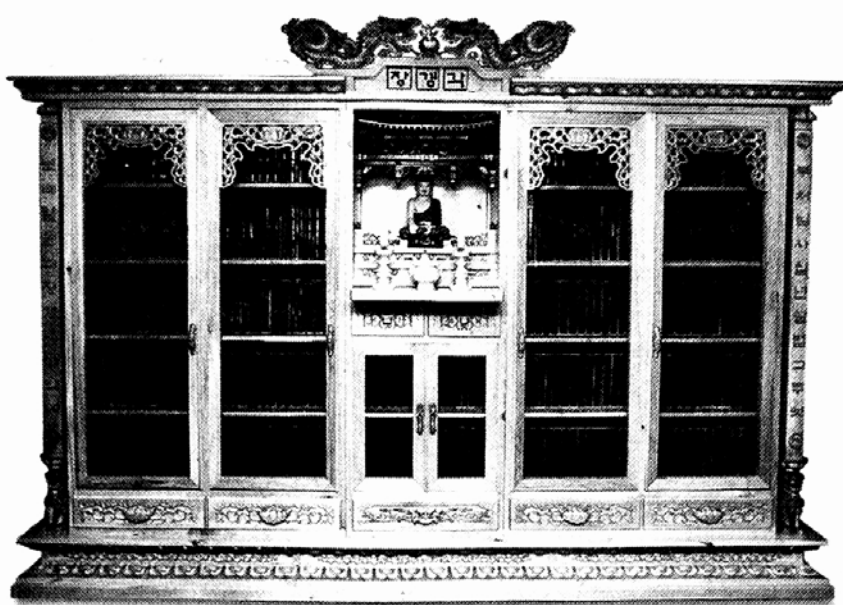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금) 견본모델 가로 340cm x 세로 240cm

사찰에 봉안하면 석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싯고 마음 밝히면 범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탕화가 화려한 단장파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항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중앙협의회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